

미혼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활동 유형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과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의 융합적 연구

임영숙¹, 조혜련^{2*}

¹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²원광대학교 간호학과

A Convergence Study of Cervical Cancer Knowledge and Cervical Cancer Preventing Behavioral Intention according to Cervical Cancer Preventing Behavior Type among Unmarried Women

Youngsook Lim¹, Haeryun Cho^{2*}

¹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Doctoral student

²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과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를 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21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자가보고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미혼여성의 33.9%가 HPV 예방접종을 시행하였고 7.9%가 Pap test를 시행하였다. Pap test와 HPV 예방접종을 모두 시행한 그룹은 6.7%, Pap test 또는 HPV 예방접종을 시행한 그룹은 28.5%이었다.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따라 자궁경부암 가족력, 자궁경부암 예방행위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미혼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미혼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건강 전문가가 가장 의미 있는 지원시스템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혼 여성이 자궁경부암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야 한다.

• 주제어 : 의도, 지식, 자궁경부암 선별검진, 예방접종, 융합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convergence study is to understand the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and its prevention of cervical cancer in unmarried women. 216 women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SPSS program. In result,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was performed in 33.9%, pap test was performed in 7.9%. The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and pap test group were 6.7% and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or pap test group were 28.5%. According to the cervical cancer prevention activities, several differences were detected in the family history of cervical cancer, subjective norms of cervical cancer preven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behavioral inten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ncrease susceptibility of the prevention of cervical cancer in unmarried women, and it is important for the health professionals to perform the most meaningful support system preventing cervical cancer in unmarried women. In addition, various policies should be actively promoted that unmarried women participate in the prevention of cervical cancer actively.

• Key Words : Intention, Knowledge, Papanicolaou test, Vaccination, Convergence study

*Corresponding Author : 조혜련(chr@wku.ac.kr)

Received July 27, 2017

Accepted October 20, 2017

Revised September 1, 2017

Published October 28,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 여성에서 두 번째로 호발하는 암으로, 연간 49만 건 이상 발생하고 27만 명 이상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궁경부암은 여섯 번째로 높은 발생빈도를 보이며 전체 여성암의 1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흡연과 함께 성적인 접촉과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가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3].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성행태 양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성경험 시작 시기는 중학생으로 확인되어[4] 젊은 여성 대상의 자궁경부암 예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 검진(Papanicolaou test [Pap test]) 권고안에서도 연령에 상관없이 성경험이 있는 여성이거나 성경험에 관계없이 만 20세 이상의 여성을 검진대상으로 포함하여 자궁경부암 조기 예방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힘쓰고 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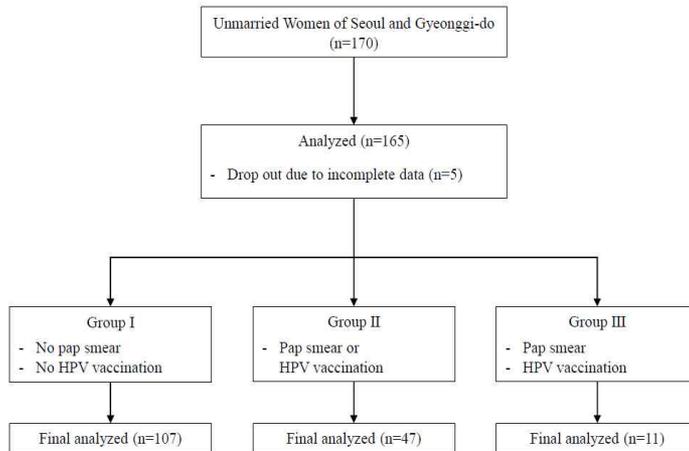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정기적으로 Pap test를 하는 것이다[6].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27.1%가 Pap test를 시행하였고[7], 여대생의 경우에는 4.2%만이 Pap test를 시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이렇듯, Pap test는 자궁경부암을 조기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Pap test 이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Pap test와 함께 HPV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HPV 예방접종으로, 2006년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승인한 이후 현재까지 약 80개국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9]. 영국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10대 여성 47.4%에서 93.8%가 HPV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면[10], 우리나라의 HPV 예방접종률을 살펴보면, 10대 여성은 10%, 20대 여성은 14.7%에 그치고 있다[11]. 최근 자궁경부암의 예방 활동으로 HPV 예방접종이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HPV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6].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12]의 연구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HPV 예방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미혼 여대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Kim [6]은 HPV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에 예방접종 비율이 5배 정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것은 지식이 예방행위 의도와 예방접종 수용도를 향상시켜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때문이다[13]. 따라서 지식은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미혼 여대생의 Pap test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Kim [14]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검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혼 여대생을 대상으로 Pap test의 행위 의도를 예측하는 경로모형을 분석한 Kang, Kim, Kaneko, Cho와 Lim [8]의 연구에 따르면 Pap test에 대한 지식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그들의



[Fig. 1] Flow diagram

Pap test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행위의도는 Ajzen [15]의 계획적 행위이론에서 도출된 개념으로써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포함하여 목표지향적인 행위의 의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최근 들어 암 관리에 대한 연구는 재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가 관리에 대해 주로 이루어졌고[16,17],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백신접종 수용도 및 영향요인[18], 자궁경부암 지식, Pap test 의도 및 태도[6]와 Pap test 현황 및 행위의도를 파악한 연구[14,19] 등이 있으나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으로 Pap test와 예방접종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는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6,12,14,18]. 미혼 여성은 상대적으로 건강행위의 수정 가능성이 큰 단계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의 중요한 시기이고[19], 이때 정착된 건강습관은 향후 중년기와 노년기의 건강증진행위와 이에 따른 건강한 삶의 기반으로 미래의 건강에 대한 태도, 실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 또한 미혼 여성은 자궁경부암 예방에 있어 주목받고 있는 대상자이고, 미래에 어머니로서 한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집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Pap test와 HPV 예방접종을 고려하여 자궁경부암 예방활동 유형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 차이를 확인하여 미혼여성의 효과적인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자궁경부암 예방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의 정도 및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예방활동 유형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미혼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의 유형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과 예방행위 의도 차이를 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와 K도에 거주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혼 여성이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3 program [2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검정력 .80, 집단 수 3개일 때 필요한 표본 수는 159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70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불충분한 응답을 한 5부를 제외하였고, 165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자궁경부암 예방 활동 유형에 따라 Pap test와 HPV 예방접종을 모두 하지 않은 집단 (Group I), Pap test나 HPV 예방접종 중 한 가지만 한 집단 (Group II), Pap test와 HPV 예방접종을 모두 한 집단 (Group III)으로 분류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Group I이 107부, Group II는 47부, Group III는 11부로 확인되었다(Figure 1).

2.3 연구 도구

2.3.1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도구는 Cermak, Cottell과 Murman [2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각 문항이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내용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총 10개 문항이며 각 문항의 답가지는 1개의 답과 3개의 오답으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정답을 표시한 경우 1점을 부여하였고, 오답을 표시한 경우는 0점으로 부여하였다. 측정 가능한 점수 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2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는 Kim [14]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미혼 여대생의 Pap test의 행위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Ajzen [15]의 계획적 행위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도구로써 4개의 하부요인(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 의도)으로 구성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Pap test와 HPV 예방접종의 행위 의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보완하였고,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8개 문항이며 태도 5문항, 주관적 규범 3문항, 지각된 행위통제 6문항, 행위 의도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측정하였다.

태도는 최소 5점에서 최대 20점까지 측정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의미를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6이었고[14], 본 연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는 .86이었다.

주관적 규범은 최소 3점에서 최대 12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9이었고[14], 본 연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는 .83이었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최소 6점에서 최대 24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대한 지각된 행위에 장애가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69이었고[14], 본 연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는 .73이었다.

행위 의도는 최소 4점에서 최대 16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대한 행위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0이었고[14], 본 연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는 .88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이었다. 연구보조원 6인이 직접 대상자를 만나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윤리적 위배사항이 없이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하여 자발적으로 자료수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가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평균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 (IBM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궁경부암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 자궁경부암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의 차이는 chi square와 one-way ANOVA로 확인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를 실시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W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IRB No. WKIRB-201703-SB-005).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전 본 연구자가 연구보조원을 대상으로 설문방법과 윤리적인 자료수집에 대해 1시간 교육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연구 참여에 따르는 혜택 및 위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문을 제공하고 구두로 설명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다. 설문이 종료된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Min-Max	Mean±SD	n (%)
Age (year)		18-38	20.9±3.7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135 (82.3)
	Above college			28 (17.2)
Religion	Have			93 (56.4)
	None			72 (43.6)
Job status	Student			132 (80.0)
	Employed			22 (13.3)
	Unemployed			11 (6.7)
Cervical cancer preventing information	Have			98 (59.4)
	None			67 (40.6)
Type of cervical cancer preventing behavior	No Pap test and HPV vaccination			107 (64.8)
	Pap test or HPV vaccination			47 (28.5)
	Pap test and HPV vaccination			11 (6.7)
HPV vaccination	Have			56 (33.9)
	None			109 (66.1)

Regularly Pap test	Yes			13 (7.9)
	No			152 (92.1)
Reason of no pap smear*	Bother			20 (12.1)
	Expensive			10 (6.1)
	Difficulty getting to hospital			8 (4.8)
	Embarrassment			4 (2.4)
	No symptom			45 (27.3)
Family history of cervical cancer	Not to know why			40 (24.2)
	Forget			23 (13.9)
	Yes			6 (3.6)
	No			159 (96.4)
Knowledge		2-9		5.3±1.4
Cervical Cancer Preventing Behavioral intention	Attitude	10-20		16.2±2.3
	Subjective norms	3-12		8.6±2.1
Behavioral inten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6-24		15.2±3.0
	Behavioral intention	4-13		7.9±2.2

* Multiple choice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최소 18세에서 최대 38세로 평균 20.9±3.7세이었다.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한 정보는 59.4%가 가지고 있었으나 HPV 예방접종은 33.9%가 시행하였고, 정기적인 Pap test는 7.9%만이 시행하였다. Pap test를 받지 않는 이유는 증상이 없어서(27.3%), Pap test를 왜 하는지 몰라서(24.2%), 잊어버려서(13.9%), 귀찮아서(12.1%) 순으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 가족력이 있는 대상자는 3.6%이었다.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 정도는 평균 5.3±1.4점이었으며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의 태도는 16.2±2.3점, 주관적 규범은 8.6±2.1점, 지각된 행위통제는 15.2±3.0점, 행위 의도는 7.9±2.2점이었다.

3.2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은 Table 2와 같다. 10개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10.3%~94.5%로 나타났다.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HPV 예방접종이 추천되는 시기가 11~12세이라는 내용으로 10.3% 정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자궁경부암 조기발견 시 치료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30.3%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HPV 감염 시 나타나는 흔한 증상에 대한 질문에는 30.9%의 정답률을 보였다. 가장 정답률이 높은 문항은 Pap test를 하는 목적에 대한 문항으로 94.5%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HPV의 가장 흔한 전파경로에 대한 문항으로 89.7%의 정답률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ct response of each knowledge item (N=165)

no.	Item	n (%)
1	A pap test screens for cervical cancer.	156 (94.5)
2	The risk of contracting HPV can be reduced with the use of male condoms.	110 (66.7)
3	Existing cases of HPV are treated with surgery.	61 (37.0)
4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risk factor associated with HPV being overweight.	97 (58.8)
5	HPV is most often detected by the result of an abnormal pap test.	51 (30.9)
6	The HPV vaccine is recommended for female in which of the age 11 through age 12.	17 (10.3)
7	The most common cause of cervical cancer is HPV.	112 (67.8)
8	HPV is most commonly transmitted through sexual contact.	148 (89.7)
9	Approximately every year is recommended for a woman to receive a pelvic exam.	75 (45.5)
10	Steroid treatment is not used for treating precancerous cells.	50 (30.3)

3.3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예방활동 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 자궁경부암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의 차이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예방활동 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 자궁경부암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자궁경부암 예방활동 유형에 따른 자궁경부암 가족력이 있는 대상자는 Group I이 2.8%, Group II가 2.1%, Group III가 18.2%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7.16, p=.028$). 그리고 Group III의 주관적 규범 평균 점수는 10.09±2.17점이었고 Group I의 평균 점수는 8.44±2.2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11, p=.047$). 또한 Group III의 지각된 행위통제 평균 점수는 11.45±3.56점이었고 Group I은 15.39±2.73점, Group II는 15.57±2.8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0.34, p<.001$). Group III의 행위 의도는 11.45±1.37점이었고 Group I은 7.51±2.07점, Group II는 7.91±2.0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9.10, p<.001$).

한편, 자궁경부암 예방활동 유형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과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 중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mparison of variables by groups

(N=165)

Variable		Group I (n=107)	Group II (n=47)	Group III (n=11)	χ^2/F (p)	Scheffe
		n(%)/ Mean±SD	n(%)/ Mean±SD	n(%)/ Mean±SD		
Age (year)		20.84±3.63	20.74±3.85	21.45±4.00	0.16 (.849)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88 (83.0)	38 (80.9)	9 (90.9)	0.49 (.781)	
	Above college	18 (17.0)	9 (19.1)	1 (10.0)		
Religion	Have	61 (57.0)	27 (57.4)	5 (45.5)	0.57 (.751)	
	None	46 (43.0)	20 (42.6)	6 (54.5)		
Job status	Student	87 (81.3)	35 (74.5)	10 (90.9)	2.08 (.721)	
	Employed	13 (12.1)	8 (17.0)	1 (9.1)		
	Unemployed	7 (6.5)	4 (8.5)	0 (0.0)		
Cervical cancer preventing information	Have	61 (57.0)	27 (57.4)	10 (90.9)	4.81 (.090)	
	None	46 (43.0)	20 (42.6)	1 (9.1)		
Family history of cervical cancer	Yes	3 (2.8)	1 (2.1)	2 (18.2)	7.16 (.028)	
	No	104 (97.2)	46 (97.9)	9 (81.8)		
Knowledge		5.20±1.36	5.56±1.47	4.91±1.70	1.52 (.223)	
Cervical Cancer Preventing Behavioral intention	Attitude	16.23±2.32	16.09±2.17	16.36±3.00	0.10 (.909)	
	Subjective norms	8.44±2.24	8.57±1.69	10.09±2.17	3.11 (.047)	Group1 < Group III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15.39±2.73	15.57±2.86	11.45±3.56	10.34 (<.001)	Group III < Group I, II
	Behavioral intention	7.51±2.07	7.91±2.01	11.45±1.37	19.10 (<.001)	Group I, II < Group III

Group I : No Pap test and HPV vaccination

Group II : Pap test or HPV vaccination

Group III: Pap test and HPV vaccination

4. 논의

본 연구는 미혼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활동 유형에 따라 자궁경부암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의 차이를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미혼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59.4%가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였으나 실제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33.9%가 HPV 예방접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HPV 예방접종률은 여대생의 접종률이 25.3%라고 한 Lee와 Oh [23]의 보고와 간호대학생의 HPV 예방접종률이 14.7%라고 한 Kim 등[10]의 연구 결과보다 높았고, 부산지역 20대 여성의 HPV 예방 접종률이 34.8%라고 보고한 Seong과 Kim [2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을 포함하였으며, 일반 성인이 지각하는 HPV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학

생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HPV 예방접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최근 자궁경부암 검진에 대한 권고에 따르면 Pap test는 성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만 20세 이상의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5]. 하지만 본 연구 대상자의 상당수가 Pap test의 대상자이지만 7.9%만이 Pap test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전문가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Pap test의 수검률은 낮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되었다[19]. HPV 접종을 마친 경우에도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Pap test가 요구되므로[6] 미혼여성에게 Pap test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실제적으로 Pap test 행위를 정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에서는 검진으로 인한 수치심, 노출의 두려움, 산부인과에서 낯선 의사를 만날 때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성인 여성의 Pap test의 장애물이라고 보고하였다[14,25].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Pap test를 받지 않는 이유는 증상이 없어서, 자궁경

부암 검사를 왜 하는지 몰라서 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Pap test의 목적과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육과 함께 자궁경부암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 정도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의 자궁경부암 관련 지식이 20점 만점 중 평균 9.57점이었는다는 Bang 등[26]의 보고와 미혼 간호사의 자궁경부암 관련 지식수준이 20점 만점 중 평균 7점 이하 이었다는 Kim [14]의 보고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HPV 예방접종 시기와 자궁경부암 조기발견 시 치료방법, HPV 감염 시 나타나는 흔한 증상에 대한 질문에는 30% 이하의 정답률을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 여대생은 자궁경부암 검사 및 진단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고[27], 미혼 간호사는 HPV 감염의 증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어[19]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최근 일부 대학교 보건진료소와 지역사회별 보건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HPV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착성인 여성의 HPV 예방접종과 관련된 지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Cermak 등[22]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전문가가 제공한 건강 교육 중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한 내용은 질적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올바른 지식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의 질을 평가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의 유형에 따라 Pap test나 HPV 예방접종을 안 한 그룹(Group I), Pap test와 HPV 예방접종 중 한 가지만 한 그룹(Group II), Pap test와 HPV 예방접종 모두 한 그룹(Group III)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자궁경부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Group I은 2.8%, Group II는 2.1%인 반면 Group III은 18.2%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20세 이상 여성의 경우 자궁암 가족력이 있는 군의 자궁경부암 검진행위가 높다는 Lee [27]의 결과와 일치한다. Koh, Lee, Lee와 Sohn [28]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자주 방문하게 되어 검진의 접근성이 높고, 관련 정보에 자주 노출되어 보다 적극적인 예

방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관련 질병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족력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여 자궁경부암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주관적 규범이란 의미 있는 사람이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의미한다[14]. 본 연구 결과, Group III의 주관적 규범 정도는 Group I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검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Koh 등[28]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있어 의미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건강전문가가 가장 의미 있는 지지체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지각된 행위에 장애가 얼마나 있는지를 의미하며[14], 본 연구에서 Group I과 Group II의 지각된 행위통제 정도는 Group III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여대생의 Pap test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점수는 평균 16점으로[14] 본 연구의 Group I과 Group II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은 Pap test에 대한 불편함과 부담감, 비싼 HPV 예방 접종 비용과 같은 장애가 있다[14,25]. 건강보험공단에서 만 2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Pap test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29], 지역 사회 보건소에서는 HPV 예방접종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대한 장애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 여성이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Group III의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대한 행위 의도 정도는 Group I과 Group II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중학생의 건강증진 행위 의도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 정도가 높다는 Kang [30]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성인 여성이 올바르게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위 의도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자궁경부암 예방활동 유형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자궁경부암 지식과 예방활동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6,12]와 상

반된 결과이다. 반면 Ko [25]가 청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궁경부암 관련 지식이 자궁경부암 검진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고한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HPV 예방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에 자궁경부암 지식이 차이가 없으며, 자궁경부암 지식이 HPV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한 Lee와 Oh [23]의 보고와도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이 높지 않고,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한 민감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추출하지 못하였으며 자궁경부암에 있어 주요변수인 성관계 경험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자궁경부암 예방활동 유형별로 균등한 표본을 추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자궁경부암의 예방이 필요한 집단의 조건에서 성관계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반영한 점과 미혼 여성이 올바른 자궁경부암 예방 활동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을 검진과 예방접종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미혼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33.9%가 HPV 예방접종을 시행하였고, 7.9%가 Pap test를 시행하였다. Pap test와 HPV 예방접종을 모두 시행한 그룹은 6.7%, Pap test 또는 HPV 예방접종을 시행한 그룹은 28.5%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따라 자궁경부암 가족력, 자궁경부암 예방행위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 의도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자궁경부암 가족력이 없는 대상자의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미혼 여성의 올바른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을 위해 건강전문가가 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지지체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혼 여성이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을 보다 더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자궁경부암 예방활동 유형별로 충분한 표본을 추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각 유형별로 충분한 표본을 수집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미혼 여성에 한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기혼 여성으로 확대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17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REFERENCES

- [1] D. M. Parkin, F. Bray, J. Ferlay, P. Pisani, "Global cancer statistics 2002", CA: Cancer J. for Clinicians, Vol. 55, NO. 2, pp. 74-108, 2005.
<http://dx.doi.org/10.3322/canjclin.55.2.74>
- [2] http://www.cancer.go.kr/mbs/cancer/subview.jsp?id=cancer_040102000000.
- [3] G. M. Hochbaum, Public participation in medical screening programs, Public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9.
- [4] The 11rd online survey statistics of adolescents health behavior(Issue Brief No. 11-1460736-000038-10).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 [5] K. J. Min, Y. J. Lee, M. A. Suh, C. W. Yoo, M. C. Lim, J. K. Choi, M. R. Ki, et al., "The Korean guideline for cervical cancer screening", J.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 58, No. 5, pp. 398-407, 2015.
<http://dx.doi.org/10.5124/jkma.2015.58.5.398>
- [6] H. W. Kim, "Effects of HPV-linked cervical cancer prevention education on unmarried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 of Academy of Nursing, Vol. 39, No. 4, pp. 490-498, 2009.
- [7]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_O_STTS_IdxMain.jsp?idx_cd-1440

- [8] K. A. Kang, S. J. Kim, N. Kaneko, H. R. Cho, Y. S. Lim, "A prediction of behavioral intention on Pap screening test in college women: a path model", *J.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31, No. 1, pp. 135-148, 2017.
<http://dx.doi.org/10.5932/JKPHN.2017.31.1.135>
- [9] Human Papillomavirus (HPV) infection.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2017.
<https://www.cdc.gov/std/tg2015/hpv.htm>
- [10] Annual HPV vaccine coverage in england 2015 to 2016. Public Health England, 2016.
<http://www.gov.uk/government/statistics/annual-hpv-vaccine-coverage-2015-to-2016-by-local-authority-and-area-team>
- [11] M. J. Seo, "The younger the cervical cancer, I do not prevent it", *NEWSIN*, 2012,
<http://www.news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92>.
- [12] E. J. Kim, S. H. Kim, H. I. Chung, C. Y. Kim, "A Factors affecting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3, pp. 464-472,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3.464>
- [13] J. H. Kim, M. K. Park, "Study on the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and human papillomavirus and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J.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5, pp. 225-231, 2009.
- [14] H. W. Kim (2014a), "Awareness of pap testing and factors associated with intent to undergo pap testing by level of sexual experience in unmarried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results from an online survey", *BMC Women's Health*, Vol. 14, pp. 1-13, 2014.
- [15] I.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No. 2, pp. 179-211, 1991.
[http://dx.doi.org/10.1016/0749-5978\(91\)90020-T](http://dx.doi.org/10.1016/0749-5978(91)90020-T)
- [16] Y. S. Kang, I. S. Kwon, E. Y. Hong, "The of integrated intervention for community dwelling cancer patients' quality of life, depression and self care agency", *J.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30, No. 3, pp. 445-456, 2016.
<http://dx.doi.org/10.5932/JKPHN.2016.30.3.445>
- [17] H. R. Yoo, S. J. Boo, M. S. Chun, E. M. Jo, "The effect of a community-based self-management program for patients at thyroid cancer-diagnosis stage: a pilot study", *J.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9, No. 3, pp. 582-593, 2015.
<http://dx.doi.org/10.5932/JKPHN.2015.29.3.582>
- [18] H. W. Kim, G. Y. Ko, "Assessment of Koreans' beliefs about Pap test and cervical cancer of unmarried college students", *Korean Women Health Nurse*, Vol. 19, No. 1, pp. 13-22, 2013.
- [19] H. W. Kim (2014b), "Influencing factors of intention of undergoing pap testing among unmarried nursing", *Korean J. of Women Health Nursing*, Vol. 20, No. 3, pp. 225-233, 2014.
- [20] N. S. Oh, J. Y. Park, C. H. Han, "Health-promoting behaviors and related factors for college students by types of residence", *Korean J.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8, No. 2, pp. 27-40, 2011.
- [21]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No. 2, pp. 175-191, 2007
- [22] M. Cermak, R. Cottell, J. Muran, "Women's knowledge of HPV and their perceptions of physician educational efforts regarding HPV and Cervical Cancer", *J. of Community Health*, Vol. 35, No. 3, pp. 229-234, 2010.
<http://dx.doi.org/10.1007/s10900-010-9232-y>
- [23] H. R. Lee, Y. J. Oh, "Convergence factors influencing the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in some female university students", *J.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2, pp. 235-244, 2015.
<http://dx.doi.org/10.14400/JDC.2015.13.12.235>
- [24] D. H. Seong, Y. H. Kim, "Factors influencing the human papillomavirus (HPV) vaccination of female

in their twenties in come Busan areas”,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7, pp. 4212-4219, 2014.

<http://dx.doi.org/10.5762/KAIS.2014.15.7.4212>

[25] Y. H. Ko, “Physical activity, social support and participation of women knowledge about cervical cancer screening, the screening attitude multiplicative influence of cervical cancer screening”, J.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7, pp. 439-449, 2016.

<http://dx.doi.org/10.14400/JDC.2016.14.7.439>

[26] K. S. Bang, S. M. Sung, B. Y. Koo, M. J. Kim, Y. A. Kim, J. S. Kim, S. M. Ryu, “Female university students’ HPV-related knowledge and influencing factors on HPV Vaccination”, Asian Oncology Nursing, Vol. 11, No. 3, pp. 186-192, 2011.

<http://dx.doi.org/10.5388/jkon.2011.11.3.186>

[27] S. R. Lee, “Factors influencing on cervical screening acceptance using pap smear in women over 20 years old”, J.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5, pp. 305-310, 2014.

<http://dx.doi.org/10.14400/JDC.2014.12.5.305>

[28] K. W. Koh, D. H. Lee, Y. H. Lee, H. S. Sohn,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uterine cervical screening and its utilization among women in a district of Busan city”, J. of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Vol. 6, No. 1, pp. 93-105, 2002.

[29]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ject Information (Issue Brief No. 11-1532000-000206-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30] Y. H. Kang, “Self-efficacy, health promotion behavior inten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 13, No. 3, pp. 87-100, 2012.

저자소개

임 영 숙(Young-sook Lim) [정회원]



- 1990년 2월 ~ 1994년 5월 : 서울 아산병원 근무
- 1994년 5월 ~ 2002년 2월 : 삼성서울병원 근무
- 2017년 2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과정 중)

<관심분야> : 아동간호, 의미요법

조 해 린(Haeryun Cho) [정회원]



• 201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아동간호, 성장발달